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사고 비밀문건 수천건 전격공개

우크라이나 정부는 사상 최악의 핵발전소 사고였던 1986년 체르노빌 원자로사고와 관련한 수천건의 KGB 비밀 문건들을 21일 전격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중 121건을 정보기관인 SBU의 인터넷 사이트(www.sbu.gov.ua)에 올렸다.

이 비밀 문건들은 당시 KGB 우크라이나지부가 작성해 모스크바본부에 보고한 것들이 대부분으로, 1986년 4월26일 대재앙 당시의 전후 상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기간은 1971년부터 1988년까지 걸쳐 있다.

1984년의 한 보고서는 유고슬라비아 공장들에서 제작돼 체르노빌발전소로 공급된 장비가 저질이며, 3, 4호 원자로에 '결함들'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고 당시 4호 원자로가 폭발해 유럽 대부분 지역을 덮였으며 최소한 5천명에서 3만명이 사망했다. 500만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방사선 노출에 따른 질병

과 후유증으로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다. 일부 문건들은 또 체르노빌 사고 전인 1982년 9월9일에도 이 발전소에 사고가 발생해 강한 방사선이 인근 지역으로 방출됐으며 사고가 재발될 위험이 아주 크다고 체르노빌 기술자들이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기술자들은 또 1986년 초 이 발전소 시설들을 상세하게 검사하고 안전하게 운행하기는 너무 위험하다고 경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건들 중에는 사고 당일 KGB 책임자 무카 장군이 자신과 부하들이 "발전소와 주변 지역의 상황을 장악했다"며 모스크바에 보낸 편지도 포함돼 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인 SBU는 이 문건들을 오는 4월26일 '우크라이나국가문서국에 이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최초 원전 건설 계획 추진

지금까지 재래식 발전방식에만 의존해온 베트남이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처음으로 밝혀 한국 등 관련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베트남의 관영 영자신문 베트남 뉴스는 1일 베트남원자력연구소(VAIE)의 부총 후 탄 소장의 말을 인용,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인 전력난 해소를 위해 늦어도 오는 2018년까지 1천200-1천800MW급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VAIE와 원자력개발국가조정위원회는 600MW급 원자로 2-3기 건설계획과 18억-20억달러 규모의 투자자본 소요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타당성 조사서를 오는 7월까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원전 건설 후보지로는 남부 닝투안성의 빈하이 또는 푸옥딩 지역이나 중부 푸옌성의 호아 탐

지역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탄 소장은 밝혔다.

탄 소장은 이어 원전 건설 자체에는 5년 가량의 공사기간이면 충분하지만 전문인력양성, 관리기구 설립, 관련법제정 등에는 훨씬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트남은 부족한 전력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1990년대부터 원전 건설을 검토해왔으나 정부 내의 복잡한 의견수렴 절차, 재정난 등으로 원전 도입에 대한 최종결정을 미뤘었다.

현재 베트남에는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등이 화력발전소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관련업체들은 원전 건설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벌써부터 치열한 물밑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은 지난 1996년 베트남과 한-베원자력연구협력협정을 체결했다